

韓 관광객 유치 나선 필리핀 정부

年 160만명 比 방문... 지속가능 관광 모델로

2018년 필리핀 전체 방문 비중 1위 보라카이 재개장 등 국가적 노력 관광 인프라 개선도 적극 나설 것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베르나데트 로몰로 푸얏 필리핀관광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리핀 관광의 주 고객인 한국 관광객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은 한국 관광객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관광 국가 중 하나다. 지난 한 해 동안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158만 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2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올해도 순조로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52만여 명이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47만여 명)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푸얏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 분야에서 특히 느낄 수 있다”면서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관광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베르나데트 로몰로 푸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 /김민서 기자

시장으로 자리잡으며, 관광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관광부는 올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한국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7~9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등에서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돼 세부, 보라카이 등 다양한 관광지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필리핀 보라카이 석양. /KRT 여행사

푸얏 장관이 앞세운 키워드는 미식, 자연 그리고 인프라 개선이다.

현재, 필리핀은 자국 음식을 통한 미식 관광과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자연 농원 관광에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얏 장관은 “한국처럼 필리핀도 삶에서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필리핀 음식 중에는 먹어봐야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필리핀관광부는 필리핀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졸리비와 파트너십을

통해 필리핀 음식을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훼손이 적은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내 자연 농원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막탄, 팔라오에 국제 공항을 신설해 중부 비사야 지역의 편의성을 높인 데 이어, 클락 국제공항, 레가스피 국제공항이 증축되고 있다.

또한, 다바오, 칼리보, 일로일로 등 유명 관광지에 공항 개발 공사가 진행

되고 있어 필리핀의 다양한 관광지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신설, 확장 및 보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6개월간의 폐쇄를 끝내고 재개장한 보라카이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시발점이다.

푸얏 장관은 “앞으로 보라카이의 성공 사례를 보훈, 팔라완 등 다른 유명 관광지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서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쉐이크쉑, 부산 서면서도 맛본다

SPC, 7월 부산 1호점 매장 오픈

쉐이크쉑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는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연다.

SPC그룹은 7월 11일 개점 예정인 쉐이크쉑 부산 1호점 부지에 오는 12일부터 ‘호딩(공사장 주위의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시공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쉐이크쉑 부산 1호점은 다양한 체험과 예술을 즐기 최적화된 대형 복합 문화공간인 서면 삼정타워(구 피에스타)에 위치했다.

쉐이크쉑 매장의 공사 시작부터 오픈 전까지 설치되는 호딩은 매장 오픈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예술 이벤트로서 쉐이크쉑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았다.

이번 ‘쉐이크쉑 서면점’ 호딩 콘셉트는 ‘헬로 부산(Hello Busan)’으로 뉴욕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진출한 쉐이크쉑을 비주얼 아티스트 ‘275C’와 협업해 벽에 포스터를 붙이는 ‘빌보드 아트(billboard art)’로 표현했다.

SPC그룹은 쉐이크쉑의 부산 지역 첫 진출을 기념해 사전 이벤트인 ‘커

뮤니티 데이’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360명에게 공식 오픈 전인 7월 9일 ‘쉐이크쉑 서면점’에 초대해 쉐이크쉑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당일에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을 진행해 결식 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푸드뱅크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데이’는 6월 30일까지 쉐이크쉑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이하 해피앱) 이벤트도 진행한다. 11일부터 해피앱을 통해 오픈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드 교환 쿠폰’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피포인트 플래티엄 회원에게는 26일까지 해피앱을 통해 ‘커뮤니티 데이’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해 70명을 추가 추천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쉐이크쉑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에서도 쉐이크쉑의 맛과 호스피탈리티(따뜻한 환대) 문화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코트라, 워싱턴서 ‘한미 투자협력 포럼’ 개최

韓 기업 65개사·100명 참가

美 정부·기업 주요인사와 교류

코트라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 전미주지사협회(NGA)와 함께 ‘한미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인베스트 서밋’과 연계해 열린다. 이번 셀렉트 USA 서밋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은 65개사 1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미 투자협력 포럼은 셀렉트 USA

서밋에 참가하는 기업에 미국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정부·기업 주요 인사와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열린다.

마이클 퍼거슨 전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의 투자환경 및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 전략을 제시한 패널 토론에는 현지 금융기관, 로펌, SIDO(미국 50개주 비즈니스 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쉐록의 딘 브레너 전략사업부 부사장이 ‘미국의 5세대 이

동통신(5G) 기술’ 마이크 우즈 문순 블록체인 창업자가 ‘블록체인과 미국의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IK) 대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 더욱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기술보증기금

장애인가업 기술창업 지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서울사무소에서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가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기술기반 장애인가업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장애인가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보는 장애인가업에 대한 기술금융 우대지원, 소셜벤처 판별 및 평가 지원, 장애인가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는 우수 장애인가업기술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



1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왼쪽에서 네번째부터)서기영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과 정윤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고 장애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기술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장애인가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마련해 연간 약 200억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가업에 대한 전담서비스를

위해 영입점별로 F&D(Friendly and Dedicated) 기업서포터 1인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가업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면담, 약정체결 등 보증 진행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가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0.3% 감면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